

2021년 7월 25일[제 41권 30호]

T W O W I N G S 1 5 0 0 V I S I O N

두 날개
날아오르는 건강한
예일교회

담임목사 **강승신**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56

전화 032.345.8031-2

팩스 032.345.8033

홈페이지 www.ylch.org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일교회



큰날개 주일예배

전통예배

오전 11:00

축제예배

오전 11:00

젊은예배

오후 1:30

찬양과
경배

사도신경
(카리스찬양팀)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

(노피어찬양팀)
찬양 예수 우리들의

고백과
헌신

기도 김영숙 권사
성도의 교제

기도 고진희 간사
광고 및 환영

말씀과
결단

요한계시록 5장 1~14절 (신약 404)

두렵고 불확실한 시대의 어린양

설교 담임목사

축복과
파송

봉헌 돌아서지 않으리
축도 담임목사

봉헌 내 삶은 주의 것
축도 담임목사

공동체예배 15:00

왕상 18:1~6

오바다

설교 담임목사

7월 예배위원

[다음주 기도]

축제예배 이성근 장로

젊은예배 김은숙 간사

[봉헌]

전통예배 양성순 정일숙

축제예배 박원찬 황병인

김은혜 박현숙 정세희

젊은예배 김솔 옥임석

수요기도회 19:30

목장별 모임과 나눔

8월 봉헌위원

[전통예배]

김문숙 이정은

[젊은예배]

박해인 유한나

[축제예배]

라종선 김선곤

강미령 김은희 임영미



오늘의 말씀

두렵고 불확실한 시대의 어린양

[요한계시록 5장 1~14절]

첫째, 불확실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 하지 않는 것은 인을 떼기에 합당한 ()가 이겼기 때문입니다.

둘째, 승리하신 주님은 ()을 지나 유다의 사자가 되셨습니다.



작은날개 목장나눔

노래하고 찬송하리라

[시편 57:1~11]

W

WELCOME

환 영

..... ICE BREAK를 해봅시다.

W

WORSHIP

경 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 이 시간을 성령님께 의뢰하며 기도합니다.

W

WORD

말 씀

.....
내가 다뤄본 악기는 무엇입니까? 언제 해보았습니까? 관심 있는 악기는 무엇입니까?

- 기타 / 피아노 / 드럼 / 현악기 / 관악기 / 우리나라 전통악기 / 동남아시아 악기 / 아프리카 악기 / 전자 악기 / 기타

Q

QUESTIONS

질문

1. 시인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1절) 시인은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까?(3절) 악한 자의 이와 혀는 무엇에 비유됩니까?(4절)
2. 대적들은 어떤 상황에 처합니까?(6절) 시인은 자신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7~8절)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노래합니까?(10~11절)
3.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 지금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빨리 지나가게 하소서(1절).
 - 지존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소원이 있습니다(2절).
 - 사람들의 평가와 수군거림이 너무 무섭고 상처가 됩니다(4절).
 - 악한 자들이 자기 뺨에 걸리게 하소서(6절).
 -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7절).
 -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11절).
 - 기타
4. 한 주간 찬송 부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정해보고 합심해서 도고기도 합시다.

W

WITNESS

증거

이번주 행복모임의 진행현황과 베스트와의 관계맺기에 대해서로 나누어 봅시다.

W

WORK & PRAYER

기도

돌봄이 필요한 목장가족이 있는지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1) 문제를 맡기며 기도
- 2) 베스트와 행복모임을 위해 기도
- 3) 치유와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
- 4) 축복기도



간증나눔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인도하실 하나님(2)

- 청년A-2목장 고진희 간사 -

저는 그 해 6월에 필리핀으로 파송되어 1년 동안 두날개 필리핀 교회를 섬기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사역을 가장 잘하는 선교사와 파트너가 되게 하셔서 두날개 사역을 체계적으로 배워가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제가 맡은 셀가족과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셀이 건강해졌고 또 다른 셀리더가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제게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어깨 위에 제자를 세워 항상 연합하도록 훈련하셨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서면 항상 우리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비전을 이루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가르쳐 주시고 사람을 통해 성장시키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1년의 선교사역을 감사함으로 잘 마치고 교회로 돌아와 간사로 임명을 받았고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간사 사역을 하면서 받은 가장 큰 은혜와 도전이 된 것은 전도를 시작하면서였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매일 전도팀을 하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해보라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국에 속한 한 권사님과 같이 매주 수요일은 커피를 들고 상가로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백지전도를 하였습니다. 필리핀에서 사역했던 그대로 그 자리에서 행복모임을 열었고 행복모임으로 관계 전도가 된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한가족이 되고 셀가족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은사대로 전도하고 사역하면서 협력하게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지금도 동역자들에게 지혜를 배우고 사역을 배우며 서로를 세워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역을 통해 전도에 필요한 은사가 개발되었고 지금은 전도가 제일 재미있고 제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더욱 비전에 사로잡혀 달려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때로는 감정과 성품에 흔들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를 잘 아시는 목사님께서서는 이제 교회 근처로 거주지를 옮겨 몸과 마음을 교회에 온전히 쏟기를 원하셨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고 인천에서 우리 교회까지 한 시간이 넘는 시간을 오고 가며 지치기도 했지만 편한 자리를 떠나는 것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인도 아웃리치를 가기 위해 기도하게 되었고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부하고 있던 학업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 두 번째 인천에서 역곡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일, 세 번째 교회에 뼈를 묻는 일 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모두 응답이 되었습니다. 가장 편안한 자리에서 나와 이사를 했고 학업보다 중요한 건 세계비전이었고, 뼈를 묻는 일은 교회가 나를 원할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 마음 한켠에 있던 교회를 떠나야지 라는 어리석은 마음을 완전히 버릴 수 있었고 그 다음을 준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늘 교회였습니다. 지난날 수많은 실패와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신 곳도 교회를 통해서였고 나에게 변하지 않는 비전을 허락하신 곳도 주님의 몸 된 교회입니다. 나를 부르신 자리가 사랑하는 예일교회이고 셀리더이기에 다시금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아비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내 어깨 위에 세우기 위해 자신이 엎드리는 양육자 이타적인 삶을 살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재생산의 비전을 이루며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실천하는 이러한 양육자가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내가 먼저 참된 제자가 되어서 내 어깨 위에 나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의 증인을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맡겨주신 사역의 현장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신 사명을 붙들고 영혼들을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고 일꾼을 세우며 비전을 향해 오늘도 승리 주실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일을 멈추지 말자고 다짐합니다.

저의 정체성은 재생산 사역자입니다. 영적인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재생산해야 합니다. 제자의 삶의 습관화 체질화 의식화가 되기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다른 영혼을 위해서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대가를 통해 정금 같은 제자가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낮아짐과 섬김으로 내가 여기 서 있음을 감사하며 철저히 목사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이어 복음 들고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을 이루어가는 역사의 주역으로 한결같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예일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셀리더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늘 한결같이 말하는 제2의 예일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늘 나의 마지막 모습을 상상합니다. 내가 눈을 감는 그 순간 평안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그날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비전을 잘 감당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그 날을 말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사랑하느는 진희야 고생했다. 내가 그 수고를 다 뒀다. 라고 말씀해 주실 그날을 꿈꿉니다.

늘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저를 어깨 위에 세워 제자 삼아주신 사랑하는 담임목사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나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사랑하느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목회칼럼

행복한 부자가 되세요

사람들이 하는 인사말에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자는 재물이 많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은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재물이 많기에 불행한 사람이 많습니다. 욕심을 내서 「행복한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인사말이 좋은 인사말입니다.

창세기 2장은 사람이 누릴 축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모두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물질과의 관계입니다(창 2:15~17). 물질을 다스리면 행복하고 풍성하지만 지배 받으면 매이게 되고 자유를 잃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은 서로 섬기는 관계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이 세 가지 관계를 잘하려고 하니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부자가 되세요.

잠언은 대부분 솔로몬이 기록하였습니다. 많은 분량을 재물로 부자가 되어서는 행복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솔로몬은 개인적으로 가장 큰 부자였고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

론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이 돈으로 행복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심지어 인간에게 떡이 필수불가결의 요소이지만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재물로 행복할 수 있다고 확신했던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눅 12:20). 사람은 욕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행복하려면 믿음에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부자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커졌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사람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재물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부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많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두 믿음의 부자였습니다. 다윗, 히스기야, 베드로, 바울, 모두 믿음의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부자들에게 행복을 채우셨고 땀속까지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삶을 운택하고 기쁨지게 하셨으며 만인이 추앙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에 부자가 되세요

믿음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기에 의지적 요소가 강한데 사랑은 감정적 요소가 강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잠 15:17).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람이 사랑하면 즐거워지고 기쁨을 생산해 냅니다. 사랑할 때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사랑할 때 행복해집니다. 삶의 질은 재물이나 명예, 권세나 인기가 아니라 사랑하고 사는가, 사랑하지 않는가에서 결정됩니다. 어머니가 언제 제일 기쁘고 행복하느냐고 물었더니 아기가 100% 어머니의 손길을 필요로 할 때라고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사랑을 제일 많이 쏟아 부을 때였습니다.

감사에 부자가 되세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 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딤후 6:5~6).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이 4만 불이 넘었다고 합니다. 개발도상국이나 증진국이 아니라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아무 일을 안하고 노숙자가 되어도 하루에 필요한 열량, 에너지를 공급받고 살 수 있는 사회 인프라가 구축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필요한 에너지를 과도하게 몸에 쌓아놓았기 때문에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남보다 못 가졌다고, 적게 먹었다고 화내고 싸울 이유가 없어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배고프고 헐벗었기에 감사를 못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무조건 감사해도 이제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감사만 하면 마음이 넓어지고 기뻐하게 되고,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아서 각박해졌습니다. 이미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 풍성해지고 넘치는 은혜 속에서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금주 도기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한 기도

1. 담임목사님을 위해서

-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새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2. 교회 사역을 위해서

- 다음세대 여름사역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성령충만함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주관하시어서 어려움 없이 사역들이 진행되게 하소서.

3. 선교사를 위해서

- 필리핀의 박해인 선교사와 러시아의 최슬기 선교사, 최평안 선교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며 영혼을 구원하게 하소서.

성도를 위한 기도

1. 김태완 형제

- 수레바퀴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의 중심과 질서가 바로 서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충만한 삶, 주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내는 주의 자녀되게 하소서.
-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려움과 실망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소서.

2. 김영일 집사

- 상반기 하나님의 은혜로 남성동산이 흔들림없이 양육과 훈련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재생산 사역자가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방학 중에도 새가족과 장결가족을 돌보게 하시고 하반기 사역도 잘 준비하는 건강한 남성동산이 되게 하소서.



금주의 감사

- 집중훈련을 통해 주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하나님! 어린이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 속히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을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배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아주소서.

- 영광스러운 부르심인 셀리더로 부르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다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번주 소식

1. 다음세대 여름사역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아부 성경학교 : 9. 3(금)~5(주일)
유초등부 성경학교 : 8. 13(금)~15(주일)
청소년부 수련회 : 8. 8(주일)~10(화)
청년공동체 수련회 : 8. 15(주일)~17(화)
2. 양육과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8월 둘째주 (8/8)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강은 8월 29일(주일)개강을 하게 됩니다. (신청 및 문의 - 양육반, 제자학교 : 임영미 팀장 / 세계비전제자대학1, 2학기 : 나승미 팀장)
양육반 - 주일 오후 4시 30분
토요일 오전 10시
화요일 오후 8시
(인원이 부족한 반은 폐강가능하고, 다른 반으로 이동되게 됩니다.)
제자학교 - 주일 오후 4시 30분
제자대학1학기 - 목요일 오후 8시
제자대학2학기 - 화요일 오후 8시
3. 회복캠프가 8월 28일(토)에, 리더캠프가 8월 21일(토)에 진행됩니다.
4. 다음주 공동체 예배 때는 한가족 환영식이 진행됩니다. 축가는 여성D-2목장입니다.

<동정>

임경해 한가희 집사 - 7월 20일(화) 득녀

새가족 섬김이

김한솔 자매 (섬김이 : 이혜수 자매)
김미라 성도 (섬김이 : 박현숙 권사)
김미화 성도 (섬김이 : 김은희 집사)
김연성 성도 (섬김이 : 박형훈 집사)
김인숙 성도 (섬김이 : 권진희 집사)
김풍곤 성도 (섬김이 : 김영일 집사)
노승현 형제 (섬김이 : 박관수 형제)
박병호 성도 (섬김이 : 김성국 집사)
사규미 자매 (섬김이 : 김은숙 간사)
안영준 형제 (섬김이 : 이광수 간사)
안지민 성도 (섬김이 : 강미령 권사)
안진희 자매 (섬김이 : 김은숙 간사)
오준석 형제 (섬김이 : 한상익 집사)
오청근 성도 (섬김이 : 이상철 집사)
이명용 성도 (섬김이 : 박원찬 집사)
이재암 성도 (섬김이 : 이승길 장로)
이종경 형제 (섬김이 : 임경진 집사)

다음주 봉사

[청소]

본당 : 남성6목장 (박형훈 목사)
준2층,계단 : 여성D-3목장(이해경 목사)
2층 : 여성B-1목장(김영숙 목사)
3층 : 여성A-5목장(김화심 목사)
비전홀, 멀티룸, 화장실 : 청년공동체